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23년 겨울 · 83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발행일 2023년 11월 28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김운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fnmk1974@fnmk.org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3년 겨울 83호

기획 / 구석기시대

- 04 | 구석기인의 맥가이버 칼, 주먹도끼
- 08 | 먹고사는 거 다 그런 거
- 12 | 동굴만개 洞窟滿開

문화칼럼

- 16 | 에드가 드가의 유일한 꽃 그림

회원마당

- 20 | 이 시대의 류성룡은 어디에
- 24 | 별 아래 만난 연

답사기

- 28 | 델프트 풍경을 찾아가는 예술여행

소재구의 도시 이야기

- 32 | 북한강의 옛 고을

박물관회 소식

- 36 | 2024년도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 강좌 프로그램 안내
- 40 | 2024년도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숨은전시

- 41 | 소꿉놀이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42 | 기부회원 명단



구석기시대 디오라마, 전곡선사박물관

구석기인의 맥가이버 칼, 주먹도끼



주먹도끼, 국립중앙박물관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9월이 되어 연구강좌를 들으러 나왔던 날, 방학 중에 여행 갔던 나라의 국립박물관에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첫 번째 방부터 보기 시작한다. 너무 꼼꼼히 호버 파다가 시간에 쫓겨 후회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의 첫 번째 방은 언제 가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로 특별전이 열리는 '기획전시실'에 가면서 '반구대 암각화' 정도만 스치고 지나갔던 것 같다.

그날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첫 번째 방에서 <주먹도끼>(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길이 23,6cm)를 만났다. 1977년

경기도 연천군의 한탄강가에서 처음 발견된 주먹도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모비우스Hallen L. Movius(1907~1987)는 1948년에 구석기 문화를 주먹도끼 문화권과 찌개 문화권으로 나누는 이론을 내놓았다. '모비우스 라인'은 구석기 시대의 석기 중 상대적으로 앞선 주먹도끼가 인도 서쪽의 유럽과 아프리카에만 있었다고 주장한 학설이다. 아슐리안이란 말은 1859년 프랑스의 생 아슐St.Acheul 지방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에서 유래했다. 이 가설에는 동아시아 지역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계의 주류 이론이었던 모비우스



찌개, 전곡선사박물관

학설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연천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였다.

주먹도끼는 ‘양면핵석기’라 하며 당대의 첨단 기술력이 응집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도구였다. 사냥에도, 가죽을 찢을 때도, 나무를 가공할 때도 쓸 수 있어 ‘구석기인의 맥가이버 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반면 찍개는 가장 오래됐고 구석기시대 내내 썼던 도구이다. 자갈들의 한쪽 가장자리를 몇 차례 내리쳐 거칠고 강한 날을 만든 석기인데, 한쪽 면만 뎀 외날찍개, 마주 보는 양쪽 면을 뎀 안팎날찍개 등이 있다. 보통 어른 주먹도끼보다 약간 크며 나무를 다듬거나 사냥한 동물을 부위별로 자르고 뼈를 부수는 데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구석기 유적지이자 올해로 30번째 ‘구석기 축제’를 연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는 잊지 못할 사람이 둘 있다. 첫째는 그레그 보웬Greg L. Bowen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빅터밸리 대학에서 2년 동안 고고학을 공부하다 학비를 벌기 위해 군에 입대한 그는 1974년부터 동두천에 있는 미군 2사단 공군부대에서 기상관측병으로 일하고 있었다. 1977년 봄, 한국인 여자친구 이상미씨와 한탄강 유원지에서 산책을 하던 그는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돌이었지만



1977년 <Stars and stripes>에 실린 그레그 보웬

고고학을 공부한 보웬은 사람이 가공한 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 아슐리안형 석기 여러 점을 더 찾아냈다. 그는 모비우스 학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발견한 주먹도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는 부대로 돌아와 틈틈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먹도끼를 발견했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지도에 정확한 발견 지점을 표시했다. 그는 당시 세계적인 선사고고학 전문가였던 프랑스의 프랑수아 보르도 교수에게 편지와 보고서를 보냈다. 보르도 교수는 당시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을 맡고 있던 김원용 교수(1922~1993), 전곡리 유적지의 잊지 못할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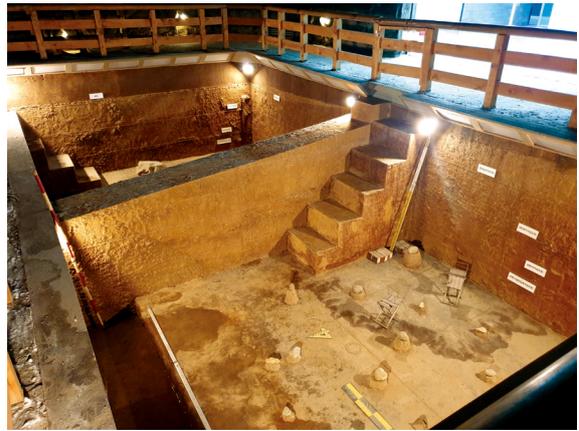
김원용과 그레그 보웬



김원용이 첫 주먹도끼를 발견한 곳 표시

번째 인물에게 ‘심상치 않은 석기의 발견’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보웬에게도 김원용 교수를 찾아가라는 답장을 주었다.

1978년 4월, 보웬은 주먹도끼를 들고 서울대 고고학과를 찾아갔고, 거기서 당시 휴학생이던 이선복 교수를 만났다. 그리고 여주 혼암리의 청동기 유적 발굴 현장으로 찾아가 김원용 교수와도 만났다. <Air Force Times>라는 군사 전문 매체의 1978년 6월 5일자 신문에 전곡리의 두 주인공이 만난 사진이 실려 있다. 서울대 조사팀은 즉시 유물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김원용 교수는 1978년 11월 영남대학교 경영학 교수와 함께 『진단학보』에 「전곡리 아슐리안 양면핵석기 문화예보」라는 논문을 실어 학계에 유적을 정식으로 보고한다. 1979년 전곡리는 국가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고, 김원용 선생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전곡리 유적 발굴 조사단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았다. 한국 고고학과 미술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1993년 4월 편찬을 맡은 ‘제1회 전국구석기문화제’에 참가했다.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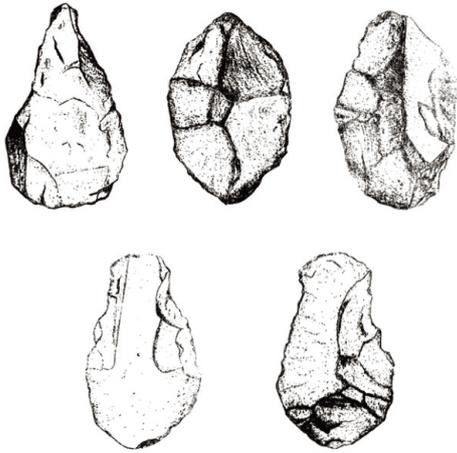
E55S20 피트 토층전시관, 연천 전곡리 유적

은 그해 11월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만들지 말고 전곡 선사 유적지에 산골散骨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그 뜻에 따라 화장하고 전곡리에 뺏가루를 뿌렸다. 1주기 추도식에 모인 이들은 발굴 현장사무소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유물전시관으로도 썼던 컨테이너 건물 옆에 ‘삼불 김원용 선생 기념비’를 세워 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다.



기념비 옆 김원용 교수 흉상

만 나라에서 온 이방인 청년의 관심이 가져온 주먹도끼의 발견은 동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단숨에 날려버렸을 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의 부러움과 시기를 불러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라끼리 겨루는 풍토가 있었다. 일본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오래된 유물이 3만 년 전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30만 년 전의 주먹도끼가 나오고, 1980년에는 단양 금굴에서 70만 년 전 유물이 발견되니 상당히 초조해졌던 듯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후지무라 신이치였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그는 1981년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하며 유명해졌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구석기 유물을 발견해 나가다 1990년대 말에는 70만 년 전, 2000년에는 8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굴했다고 발



그레그 보웬이 보고한 주먹도끼와 가로날도끼 도면



전곡리 선사유적 그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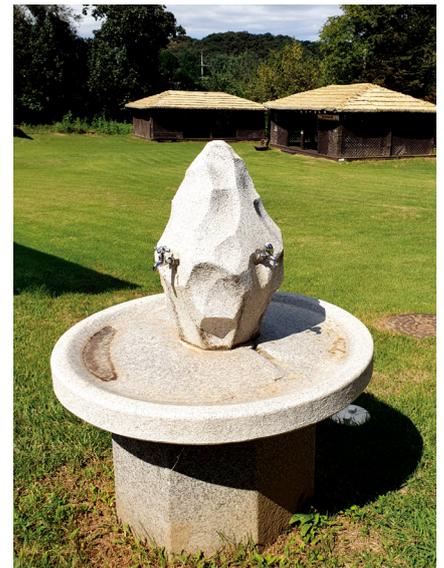
표한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의 행적은 꼬리가 밟히고 만다. 마이니치 신문에 “후지무라의 발굴은 날조”라는 특종이 실린 것이다.

한편, 1978년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레그 보웬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고고학을 전공하고 1981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여러 발굴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1988년부터는 애리조나주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굴 책임자로 일하다가 1998년 퇴직했다. 그가 2005년 경기도 연천군의 초청으로 27년 만에 전곡리를 다시 찾았을 때 남긴 말은 이렇다. “지금도 주먹도끼를 발견한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곡리를 다시 못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아쉬움이 없습니다. 주먹도끼 발견의 영광과 사랑하는 나의 아내 상미를 선물로 주신 한국 땅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사족 : 그레그 보웬이 주먹도끼를 처음 찾은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1977년과 1978년 두 가지 자료가 거의 비슷한 양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연천선사박물관의 전시자료에도

1978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78년 봄에 처음 발견하고, 그해 4월 서울대를 찾아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2005년 보웬이 다시 연천을 방문했을 때 취재를 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에 197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랐다. 🌐

길문숙 회원



주먹도끼 모양 급수대

먹고사는 거 다 그런 거

몇 년 전에 구석기 다이어트(Paleolithic Diet)라는 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다. 현대인이 비만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시달리는 원인이 신석기시대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출발한 식이요법이다. 인류의 몸은 구석기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과도한 탄수화물과 유제품 등을 섭취하면서 건강이 나빠졌으니 수렵·채집 식단으로 돌아가서 살도 빼고 건강을 되찾자는 것이다.

모든 다이어트법이 그러하듯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은 일단 미뤄두고, 우선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구석기인은 무엇을 먹고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먹거리는 각종 열매, 풀, 곤충, 조개와 생선, 그리고 짐승의 고기 정도이다. 실제로 구석기 다이어트에선 당시엔 먹지 않았을 곡류와 콩류, 당류, 유제품을 철저히 배제하고 육류와 생선 그리고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권한다.



소로리 고대벼 출토 모습



청주 소로리 출토 고대벼, 충북대학교 박물관



공주 석장리 출토 찌개와 붙는 격지 ©국립공주박물관

그럼 학자들은 구석기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냈을까? 선사시대에 대하여 뭔가를 알고 싶거나 증명하고 싶다면 땅을 파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직접 땅을 팔 수 없는 자는 간편한 답을 바라며 그들의 연구결과를 파고들다가 금세 후회를 하게 되었다. 일단 구석기 시대는 너무나 긴 기간이었다. 최근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250만 년은 넘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았던 기간의 98.8%라고 한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한반도만 생각해보려고 하더라도 7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농경 생활에 비해 수렵·채집 생활을 한 기간이 압도적인 것을 근거로 인류의 몸은 수렵과 채집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고 인류학에서는 높은 영유아 사망률과 질병, 사고사 요인 등을 빼고나면 구석기인들은 7~80세까지도 살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현대의 수렵채집인들의 주된 사망 원인을 살펴봐도 대부분 감염병이나 사고나 폭력이고, 선진국 사람들처럼 만성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적다고 한다. 이런 고인류학의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알칼리성인 석회암 지대라서 고인골이 많이 남아 있는 유럽쪽에서 나온 것들이다. 토양 산성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석기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인골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 근거가 빈약한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왠지 서양 사람들은 구석기시대에 대하여 약간의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래에 와서 시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구석기시대는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공동으로 채집하고 사냥한 것들을 다 모아 나눠 먹고, 국가도 없었기에 전쟁도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라는 인식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원시 공산주의라고 해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사회제도라고도 주장했다. 그래서 발굴 성과에 근거를 둔 논리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수렵·채집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었다. 더불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다섯 시대 중 가장 오래된 시대가 황금시대인 것도 약간의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생각해본다. 뭔가 좀 불편하게 살았지만 정다웠던 과거를 돌아보는 기분이랄까?

그럼 한국인에게 구석기시대는 어떤 시대로 인식되는가? 사실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서가 있었지만 남아 있지 못한 상황이라 그런지 고조선만 해도 아득히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 올해는 단기 435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5000년도 안 된 역사가 이렇게 아득한데 만 년 단위가 넘어가는



청원 두루봉 처녀굴 출토 쌍코뿔이 화석, 충북대학교 박물관

선사시대는 너무 먼 거다. 아무리 해도 감이 안 잡힌다. 그렇다면 더라도 국사 공부는 늘 구석기부터 시작했다.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청원 두루봉 동굴, 제원(제천) 점말동굴, 상원 검은모루, 웅기 굴포리. 『수학의 정석』을 풀 때 첫 장에 나오는 집합을 제일 열심히 공부했듯이 국사책 첫 장에 나오기에 어디에 있는 지명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외운 것을 몇 십년이 지나서도 외워 써본다. 문제는 그동안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유물들을 보러 충북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을 표시한 지도에 숫자가 204번까지 매겨진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인 소로리 벼씨라던가 탄소연대 측정결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후기구석기 유물인 수양개의 스페르르개 정도는 뉴스를 보다가 주워들은 적이 있어서 당연히 그동안 유적 발굴 숫자가 늘었을 거라고는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왠지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 구석기시대에 진심인 학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신기했다. 그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전국의 역사박물관에 방문하면 첫 번째 전시실은 선사

시대 유물로 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이 발굴한 덕이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는 일제강점기 철도공사중 우연히 발견한 함경북도 종성의 동관진 유적이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기에 무시되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60년대에 남한에서는 공주 석장리, 북한에서는 웅기 굴포리 유적을 발굴하게 되면서 한국사에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남북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정말 열정적으로 발굴을 했던 것 같다. 발굴하면 누구나 좋아해 줄 아름다운 유물은커녕 남들은 별 관심도 없는 돌이나 뼈만 발견해도 좋아하면서, 한뎛잠을 자고, 벌레에 뜯기고, 먼지와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는 것을 무릅쓰며 흙을 겹겹이 벗기고, 작은 설치류 똥조각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물에 들어가 체질을 하면서 살살이 뒤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구석기 연구가 서양보다 몇십 년이 뒤쳐진 것을 따라잡고 싶었을까? 학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 그러다 운 좋게 끼어든 학회 답사에서 학자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대화



공주 석장리 유적 6차발굴(1969) 1차지구 발굴구덩

를 나눠보니 구석기시대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주는 매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쩔 수 없는 것 하나에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찾아낸 그 시기 인류의 활동의 흔적은 누구나 알고 있는 뎀석기 외에 각종 뼈로도 찾을 수 있다. 석기와 함께 발견되는 동물의 뼈를 분석하면 당시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기후까지도 유추해낸다. 함께 남아 있는 숯과 꽃가루를 분석하면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다. 인류의 흔적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반도 자연환경 변화까지 찾아내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만 특히 구석기학은 정말 많은 학문이 통섭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점도 이 학문의 매력 중 하나일 것 같다. 그런 분야 중 하나가 지질학이다. 구석기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 제 4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에 해당하는데, 홍적세洪積世, 갱신세更新世라고도 한다. 지질학에서 이 시기를 가르게 된 기준은 가장 최근의 빙하가 시작된 시기이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



청원 두루봉 2굴 발굴(1977)



공주 석장리 출토 중돌날몸돌 ©국립공주박물관

하기인데, 인류 고고학에서 규정하는 구석기시대가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빙하의 확장 후퇴가 지속되면서 한대와 아열대를 넘나드는 기후변화 속에서 그들이 먹잇감으로 삼았던 털코끼리(메머드)나 쌍코뿔이, 동굴곰 등 여러 동물들이 멸종했는데도 그들보다 열악한 신체조건을 가진 인류가 그렇게 오래 명맥을 이었다는 것도 별난 일인데 또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막상 마지막 빙하가 물러나고 날씨가 온화해졌을 때는 현생 인류의 조상을 제외하곤 다 절멸된 상태였다는 것은 더 신기하다.

다시 먹는 이야기로 돌아와본다. 결국 유적이란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몸부림친 흔적들 아닌가. 그동안 구석기시대를 몇 십만 년 동안 큰 발전 없이 정체됐던 상태로 인식했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속도와 비교하면 정말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자꾸 바뀌는 자연환경은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변해가고 사는 곳도 옮기고 그럼에 따라 석기의 모양도 바뀌가며 만들어야 했다. 실제로 후기로 가면 석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정교해지는데, 이것 진화와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좁은 소견으로는 형편껏 살아내다 보니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여하튼 구석기 식단은 계속해서 바뀌어갔다. 그래도 구석기 다이어트에서 제안하는 식단은 여기

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 그럼 현대인은 다시 그런 식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일단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고기를 먹게 된다면 육류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구석기인 식단에서 고기 비중은 3%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모두가 고기 소비량을 그렇게 줄인다면 가능할 수는 있을까?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구석기시대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고 이미 사회구조가 그런 식단으로 살 수 없는 상태이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홀로세(Holocene) 다음으로 인류세人類世(Anthropocene)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온난화하던가 미세플라스틱 그리고 방사능 등 인류가 환경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거의 생물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

서유미 회원



단양 수양개 출토 스킨베찌르개, 충북대학교 박물관

동굴 만개 洞窟 滿開



제천 점말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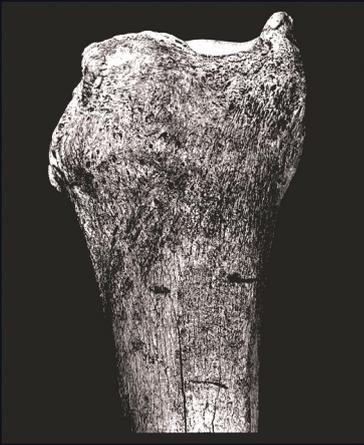


제천 점말 동굴 출토품 ©연세대학교 박물관

자, 준비하세요. 한반도에서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거슬러 까마득히 먼 구석기시대 옛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던 동굴을 찾아갑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연세대학교 박물관 동굴유적 발굴조사 50주년 기념, 동굴유적 탐험 프로그램'(2023.9.16)에 참가했습니다.

동굴은 지각의 속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작은 바위 틈새부터 광활한 지하 공간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천연동굴과 구분하여,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동굴을 동굴유적이라 부릅니다. 한반도에서는 주로 석회암지대에서 확인됩니다. 지표에서 스며드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만나 탄산이 된 후, 석회암을 녹이면서 석회동굴이 생깁니다.



얼굴 모습이 새겨진 코블이 뼈 ©연세대학교 박물관

우리나라 구석기 동굴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966년 최초 발굴된 황해북도 상원 검은모루로 대략 100만 년 전(북한 학계) 혹은 70만 년 전(남한 학계)으로 추정합니다. 남한에서는 1973년 충청북도 제천 점말 동굴유적을 시작으로 19곳이 발굴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용두산 산길을 10여 분 오르면, 동굴 입구가 용의 눈 같아 보여 용굴이라고도 하는 제천 점말 동굴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인데 동굴에 가까워지니 서늘한 기운에 단박에 땀이 식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동굴이 폭염과 한파에는 참 매력적인 곳이라고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발굴에 직접 참여하셨던 교수는 지게 가득 장비를 싣고 힘겹게 올랐던 일, 예전에는 식수로 쓰였던 개울물이 발굴 기간 흙탕물이 되어 마을사람들에게 항의 받았던 일 등을 말해 주십니다.

동굴유적 퇴적층에는 여러 겹의 낙반석과 쉬이 바스러지는 유물이 뒤섞여 있어, 발굴은 힘과 세심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된 작업의 연속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긴 노고가 헛되지 않게 참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털코뿔이·하이에나·짧은꼬리원숭이와 같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사라진 동물 등 20여 종 동물화석과 열매껍질·꽃가루 같은 식물화석, 다양한 뎀석기, 뼈연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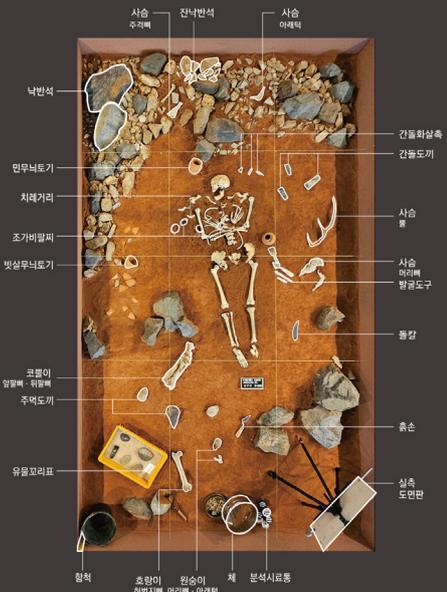
동물·식물화석과 지층의 토양분석은 빙하기·간빙기·아열대 등 지금과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을, 사슴 머리 뼈에 뚫린 석기 자국은 당시의 사냥 활동을 알려줍니다. 사람 얼굴 모습이 새겨진 코블이 앞팔뼈는 구석기 시대 미니멀리즘 예술작품입니다. 짧게 그어진 세 가로선이 두 눈과 입이 되고, 뼈의 두툼한 부분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묶어 올린 듯 보입니다. 프랑스 쇼베 동굴이나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같은 선사시대 동굴 벽화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아쉬움은 모른다는 듯 무심한 표정입니다.

지금도 부산 광안리에서 많이 나는 투박조개 장신구도 선사시대 유물입니다. 내륙지방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개는 활발했던 지역 간의 교류와 당시의 미의식을 밝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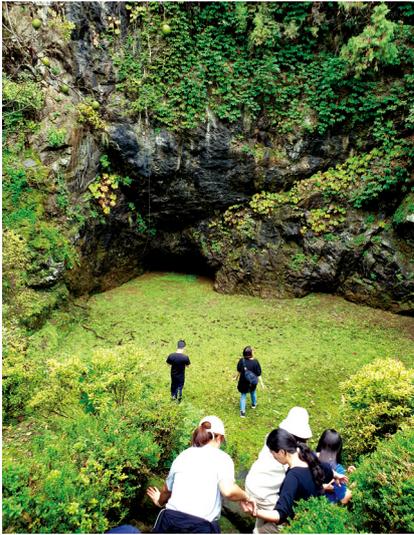


석조 탄생불 ©연세대학교 박물관

동굴 유적 발굴장 재현 모습



유적명 연세 동굴 유적
 조사기간 2023. 05. 10. - 09. 16.
 조사기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단양 상시 3 바위그늘

점말 동굴유적지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 조각, 역사시대 유물도 발견되었습니다. 광배와 대좌를 갖춘 석조탄생불, 금동불상편 등이 동굴 앞 광장에서 나왔고, 신라 화랑들이 동굴을 둘러싼 암벽에 남긴 여러 각자는 지금도 식별 가능합니다. 길이 12~13m, 너비 2~3m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동굴이지만 축적된 삶의 자취는 깊고도 넓습니다.



발견 당시 단양 상시 2,3 바위그늘 ©연세대학교 박물관

바위그늘 유적은 바위 절벽에 깊이 얹게 파인 곳으로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된 선사시대 살림터입니다. 단양 상시 바위그늘 유적은 3개의 유적군으로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시 1 바위그늘에서는 옛사람의 머리뼈 조각·팔뼈·어깨죽지뼈 등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20대 성인(구석기시대 호모 사피엔스)으로 추정합니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호모 사피엔스 이전 단계의 옛 인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경휴게소의 주유소 뒤편, 바위벽에 위치한 상시 2 바위그늘은 아담한 규모이고, 이끼가 덮은 돌길이 미끄러워 조심조심 내려간 상시 3 바위그늘 유적은 새둥지 같은 지형에 자리해서 아늑합니다. 선사인들도 우리처럼 취향에 따라 이곳저곳을 오가며 사냥, 채집, 고기잡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양 금굴 유적은 남한 지역에서 조사된 동굴유적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곳입니다. 동굴이 자리한 금색과 흑색이 섞인 암석층은 거대한 로댕 조각품처럼 치받고 몰아칠 듯 역동적이고 거친 표면이 인상적입니다. 금굴에서는 전기 구석기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거의 모든 시기 유물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예전에는 나룻배를 타야 했는데 지금은 삼봉대교만 건너면 됩니다.

규모에 걸맞게 많은 종류의 구석기시대 뎀석기가 나왔습니다. 사암·규암·석영 등 여러 돌감을 이용한 주먹도끼·주먹찌르개·찍개·여러면석기·슴베석기·돌날 등 동굴유적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선사시대 첨단 산업단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석회암지대인 단양의 지질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규모 시멘트공장을 지나가며 현재형인 장소의 역사성을 생각합니다.

답사 프로그램에는 프랑스, 모로코, 중국의 학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수십 년에 이르는 발굴 경험담, 한반도 동굴 유적의 인상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짙짙 이어집니다.

크기가 작은 설치류인 경우 몇 mm 정도의 뼈가 있어 고운체로 살살 체질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큼직한 뼈만 파헤치면 될 것 같은데, 설치류는 기후 변화에 민감하기에 선사시대의 자연환경이나 편년 연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학자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대신에 ‘주먹도끼 문화권’이란 용어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인류의 보편적 특성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주먹도끼의 사용입니다. 어찌 보면 구별 짓기에 편리한 ‘~형(style)’이란 용어는 어느 한 곳에서 생겨난 현상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다는 시각이 반영된, 문화적 우월성을 내포한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1561~1626)은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올바른 판단의 걸림돌을 경계하라며 동굴의 우상(洞窟의 偶像, Idols of the Cave)을 말했습니다. 동굴에 갇힌 인간은 벽에 생긴 그림자를, 즉 실제 세계의 가상을 진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답사를 하면서, 감히 말하자면 속담 ‘우물 안 개구리’의 철학적 확장인 동굴의 우상에 탄지를 걸어봅니다.

여러 국적의 학자들과 옛사람들의 삶이 궁금한 비연구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곳, 고고학·지질학·인류학·동물학·식물학·기후학 등 학제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곳,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주거지·피난처·저장고·관광지 등으로 쓰임이 다양한 곳. 이 모든 것에 동굴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이 동굴유적을 알았다면 ‘우물’과 동격, 다시 말해 ‘갇힌 생각’의 비유 대상이 동굴일 리는 없다 싶어집니다.

제천 점말 동굴과는 달리 단양 금굴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젖어 있는 입자 고운 흙바닥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짓말처럼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단양 금굴



암흑에 사·공간감이 일시정지 합니다. ‘디지털 문명의 구석기시대’인 현재에서 수만 년 전으로 타임 슬립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 뾰족한 아치 실루엣의 햇살을 마주하며, 바로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뜨고 지는 해를 바라보았을 선사인들의 일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짧았던 동굴유적 답사, 작지만 단단한 기억의 화석이 될 것입니다. 🐼

문정원 회원



남한강 건너에서 바라본 단양 금굴



도판1.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에드가 드가의 유일한 꽃 그림

프랑스의 인상주의자들—클로드 모네 Claude Monet(1840~1926), 구스타브 카유보트 Gustave Caillebotte(1848~1894), 베르트 모리조 Berthe Morisot(1841~1895) 같은 화가들은 하나같이 정원과 꽃을 사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정원을 마련하여 손수 가꿨고, 수없이 많은 꽃그림을 남겼다. 하지만, 인상주의 전시회에 가장 꾸준히, 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에드가 드가Edgar Degas(1834-1917)는 달랐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정원을 소유하지 않았고, 많은 양의 그림을 남겼음에도 꽃은 거의 그리지 않았다. 드가의 꽃 그림은 오직 한 점,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뿐이다.

드가가 왜 꽃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가 꽃향기를 매우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만이 전할 뿐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테이블에 꽃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거나 승합마차를 탈 때는 여성들이 들고 탄 꽃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불평했다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정말 드가가 이렇게까지 꽃을 싫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꽃이 여러모로 드가의 성향과 안 맞았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는 파리에서 나고 자란 도시남자였고 도시 풍경에 관심이 많았다. 매일이 새로운 대도시의 중심부에 거

주하는 드가는 굳이 다른 소재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눈을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럴 소재는 차고도 넘쳤으니까. 더불어 드가는 움직임에 쫓는 사람이었다. 발레리나나 경주마의 움직임을 평생의 주제로 삼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런 드가에게 가만히 앉아 있는 꽃은 지루한 소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렇다면, 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드가가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을 그린 이유는 뭘까? 그것도 이렇게 크게? 게다가 이토록 탁월하게?

궁금증이 생길 땐 작품 제작 연도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5년이다. 당시 서른한 살의 청년이었던 드가는 역사화, 종교화를 거쳐 풍경화, 자화상, 초상화 등을 전전하며 자신이 천착할 소재를 찾던 중이었다. 필시 이번 작품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소 전통적인 소재인 꽃병과 여인을 한 화면에 담아보기



도판3. <욕조로 들어가는 여인>,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판2. <공코르드 광장>, 예르미타시박물관

로 했을 거다. 다만,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말이다. 찬찬히 보면 이 작품에는 '이상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방황하던 드가가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감행했던 야심찬 실험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림의 불편한 구도다. 일반적으로 '잘 그린' 작품은 인물의 시선 쪽으로 공간이 틈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화면 안에 시원한 여백이 생기며 등장인물의 시선이 빈 화면을 지나 캔버스 밖으로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작품 속 여성의 눈은 화면 가장자리에 바로 걸려 있다. 답답해서 숨이 막힐 만큼 여인의 눈과 캔버스 끝 사이에 간격이 없다. 드가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표현을 했으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드가는 그림을 대단히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미술 교육을 받았던 그는 신고전주의의 거장 앙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1780-1867)를 특히 존경했고, 앙그르만큼이나 뛰어난 소묘력을 갖고 있었다. 인상주의 친구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좇느라 형상을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뭉개버릴 때도 드가는 정확한 형태감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잘 그릴 줄 알던 드가

가이 그림의 구도가 별로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일부러 ‘이상한 구도’를 택해 ‘캔버스 고프머리에 시선을 걸리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본 것이라 봐야 맞다. 드가는 본인의 실험이 꽤 마음에 들었던 걸로 보인다. 이후 이 구도를 빈번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도시인을 그릴 때도(도판2), 목욕하는 여인을 그릴 때도(도판3), 발레리나를 그릴 때도(도판4) 인물의 시선은 캔버스 끝에 바짝 다가가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여인의 몸이 지나치게 많이 잘려 나간 것도 이상한 점이다. 인물을 부각시켜 그리는 경우라면, 이처럼 주인공의 몸통 절반 이상을 캔버스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칫하면 그림의 모델에게 큰 결례일 수도 있었다. 이런 대담한 크롭핑 cropping은 드가의 또 다른 실험이고, 이후 드가가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도판5). 이는 그 무렵 프랑스 파리에서 한창 유행하던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에서 착안한 것일 수도,



도판5. <춤추는 무희>, 티센-보르네미사미술관

또는 드가가 빈번히 사용하던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드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이러한 ‘이상한 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다기 보다는 비교적 초창기 작품인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부터 실험한 결과라고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사실 드가도 할라치면 누구보다 ‘정상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그것도 너무 완벽하게. 꽃을 주로 그리던 여성화가 빅토리아 뒤부르크 Victoria Dubourg(1840-1926)를 그린 작품(도판6)처럼 말이다. 드가는 이 작품을 그렸던 무렵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1832-1883)를 통해 뒤부르크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은 서먹한 이 여성 화가를 그릴 때 드가는 보다 안전한 구도를 택했다. 주인



도판4. <발레 수업>, 오르세미술관

공은 전면에 정면을 보며 크게, 그녀의 주요 그림 소재였던 꽃은 뒤에 작게 그려져 있다. 시선 처리도 안정적이며, 몸통을 이상하게 자르는 무례를 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드가가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에서 여러 가지 예술적 실험을 시도했던 것은 이 작품의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작품을 소장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따르면, 작품 속 여인은 폴 발팽송 Paul Valpinçon(1834-1894)의 아내다. 드가와 발팽송은 1845년, 파리 최고의 학교 루이 르 그랑 Louis-le-Grand(볼테르, 들라크루아, 위고, 보들레르 등이 동문이다)에 입학하면서 친해졌고, 이후 평생토록 친한 우정을 나누는 죽마고우가 된다. 이 무렵 드가는 발팽송 부부가 메닐 유베르 Ménil-Hubert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을 자주 방문했는데, 꽃병에 꽂힌 늦여름의 꽃들은 드가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린 그림임을 알려준다.

나아갈 방향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던 드가를 위해 친구 발팽송은 스스로 모델이 되어 주기도 했고, 부인이나 자녀들이 모델이 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자신을 신뢰해주는 친구 앞에서 드가는 머릿속에 그리던 모든 실험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구도를 용기 내어 선보일 수 있었고, 인물을 온전히 담지 않아도 되었다. 이 작품에서 여러 형식적인 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기에 이후 드가는 작품 전반에서 자신감 있게 파격적인 구도를 선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탄탄히 구축할 수 있었다.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이 없었다면, 드가의 시그니처 작품인 발레리나 그림이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유일하고도 독특한 드가의 꽃 그림이자 중요하고도 매력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

정하윤 미술사가



도판6. <빅토리아 뒤부르크>, 톨레도미술관

도판목록

1. <꽃병 앞에 앉아 있는 여인 A Woman Seated beside a Vase of Flowers>, 1865, 캔버스에 유채, 73.7x92.7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뉴욕
2. <콩코르드 광장 Place de la Concorde>, 1875, 캔버스에 유채, 78.4x117.5cm, 에르미타시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3. <욕조로 들어가는 여인 Bather Stepping into a Tub>, c.1890, Pastel and charcoal on blue laid paper, mounted at perimeter on backing board, 55.9 x 47.6 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뉴욕
4. <발레 수업 Ballet Lesson>, 1871~1874, 캔버스에 유채, 85x75cm, 오르세미술관, 파리
5. <춤추는 무희 Swaying Dancer (Dancer in Green)>, 1877-1879, 종이 위에 파스텔과 과슈, 64 x 36 cm, 티센-보르네미사미술관 Museo Nacional Thyssen-Bornemisza, 마드리드
6. <빅토리아 뒤부르크 Victoria Dubourg>, 1868~1869, 캔버스에 유채, 81.3x64.8cm, 톨레도미술관, 오키오

이 시대의 류성룡은 어디에



옥연정사

이름이 말해주듯 옥빛을 담아 맑은 물길을 품은 옥연정사. 그곳에서의 1박은 내게 깊은 사색과 많은 성찰의 시간을 주었다.

류성룡 선생이 피눈물과 절규로 써 내려간 『징비록懲毖錄』의 탄생지가 바로 이곳 옥연정사이다.

국보인 『징비록』은 7년간 통한의 임진왜란을 겪은 후 그 책임을 떠안고 낙향한 서애 류성룡 선생께서 지난날의 반성과 앞날에 대한 대비의 의미로 5년 여 동안 집필한 소중한 기록물이다.

징비록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를 시작으로, 왜란 수년 전부터 한, 중, 일 삼국의 정치적, 시대적 상황과 각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일본 사신들의 오만함과 우리 사신들을 대하는 그들의 방자함이 나를 분개하게 한다), 그리고 전쟁 발발 후의 전시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영의정이자 전시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누구보다 전쟁의 면면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는 죄 없는 백성들의 말로는 표현 못할 참혹한 모습을 절절히 글로 토해내었다.

밀고 밀리는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 왕과 관료들의 처신 또한 이 글을 통해 엿볼 수 있었으며 일본과 중국의 간교함에 좌절하는 류성룡의 비통함도 그려졌다. 더불어 직접 천거했던 이순신, 권율 장군 등의 활약상도 기술하였는데 특히 죽마고우였던 이순신의 죽음을 애통해하였다(『징비록』에 기록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이 『난중일기』에 있었던 말인 줄 착각을 일으킨 나의 무지함이란). 총 170면 34000자의 『징비록』 원본은 1648년에 이르러서야 손자인 유원지에 의해 목판본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관심 밖이었던 『징비록』을 일본이 몰래 가져다 목판본으로 발간하여 조선을 점령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교과서로 필독서가 되었다니 통탄할 일이다.

서애 선생의 바람과는 반대로 『징비록』을 대하는 우리의 무관심과 일본의 관심이 결국은 계속된 왜침과 일제 강점기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지... 지금도 일본에는 ‘조선의 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서적들이 많다 하니, 그들의 과썸함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무심함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직접 붓으로 쓰신 『징비록』 원본은 류성룡의 유물을 전시한 영모각(하회마을 충효당 내)에 소장되어 오다가, 목판본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동에 있는 한국 국학 진흥원에 위탁 보관 중이다. 원본을 직접 보고파 그곳을 찾았으나, 목판 일부만이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고이 모셔져 있다한다. 실물 영접에 실패한 서운함보다는 이제라도 마땅하고 당연한 귀히 여김이 반갑고도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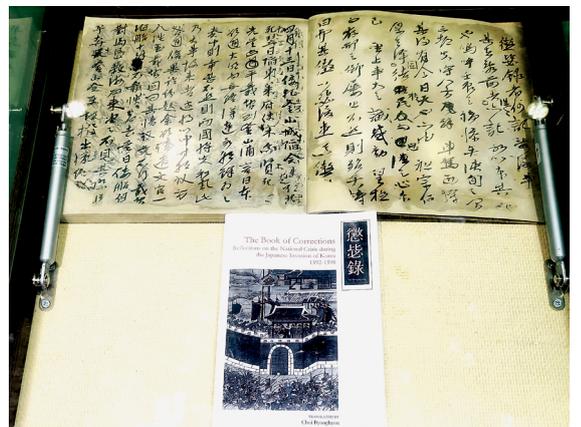
징비록 외에도 『진사록』, 『난후잡록』, 『정원전교』 등 전란 관련 기록물, 수많은 공문서들, 이순신 등 여러 장수들을 돕기 위해 만든 뛰어난 병서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셀 수 없는 서신들, 그리고 선생의 감성을 드러낸 아름다운 시모음, 매일의 사건과 날씨 등을 기록한 『구주대통력』, 심지어 당신의 병약해진 몸 상태와 원인 등을 기록한 의학서까지 그 누구보다 많은 글을 남긴 달필가 중 으뜸이신 분이다.



『징비록』 목판



『징비록』 목판본



충효당 내 영모각에 전시중인 『징비록』 필사본과 출판물



『구주대통력』



충효당

그러니 2권의 『징비록』을 5년이나 걸려 완성함은 의외라 생각될 듯도 하다. 그 첫번째 이유는 선생께서는 『징비록』 집필 당시 심신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상태였다. 특히 전쟁의 비참함을 오롯이 온몸으로 겪으며,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 죄책감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수시로 붓을 놓고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 누웠다 한다. 글의 완성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여러 고증을 참고해 가며 고쳐 쓰기를 반복하며 퇴고에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듯 우리보다 적국에서 그 위대함이 먼저 드러난 서예 류성룡. 그는 칭찬에 야박했던 퇴계 이황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천재성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재상, 훌륭한 군수 전문가, 외교관, 의학자, 대 문장가, 뛰어난 헤드헌터이자 지휘관이었다. 그가 수행한 역할을 모두 열거하기가 벅차다.

그는 또한 왕에게도 서슴없이 아닌 것은 아님을 주장하는 강직함은 물론 너그러운 포용력과 관대함,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 (사형수인 대풍손을 설득하여 화약을 다량 제조해 조총 부대를 만들고 여러 파격적인 특혜로 부족했던 병사를 확보한 일) 그리고 늘 약자 편이었던 따뜻한 인간미는 그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한다.

무엇보다 그의 청렴함은 높이 사야 할 덕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병산서원, 옥연정사는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충효당까지 그를 존경하는 많은 이들의 충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징비록 탈고 후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거처했던 농환재는 (지금은 그 터에 유허비만 남아 있다) 말 그대로 남루하기 그지 없는 초가삼간이었으며, 소천하신 후 장례 지낼 비



충효당



병산서원 존덕사

용조차 막막하자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백성들이 앞다투어 유족을 도왔다 한다.

또한 선생의 위패를 모신 병산서원 내의 존덕사에는 여타 사당과는 다르게 초상화가 없다. 이는 서애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 생각하여 왕이 보낸 화공을 매번 거절함으로 초상화를 남기지 않은 까닭이니 그의 겸허한 인품을 짐작케 하는 대목일 터이다.

현대에 이르러 고증으로 제작된 초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선생은 인물 또한 출중했다고 전해지는데 외국 사신들마저 한중일 최고의 미남이라 칭송하였고, 선조까지도 그의 수려함을 자주 언급하였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여행지라 자주 방문하는 안동, 그중에서도 유교의 기운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류성룡 선생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병산서원.

이번 방문에서의 감흥은 뭔가 좀 더 무겁고 비장하다고나 할까? 아마도 새삼 『징비록』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일 듯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즈넉함과 마음 편해짐은 부드러운 낙동강 물길, 웅대한 병산과 어우러져 더욱 소박한 듯 당당해 보이는 건축물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다.

오늘도 입교당 대청마루에 앉아 만대루를 통해 액자 속 산수화를 보듯 병풍같이 펼쳐진 병산의 자태를 무념무상 바라보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날아가 유생이 되어 앉아 있는 듯한 착각도 느껴보고, 이 시대의 류성룡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려나 아무진 꿈도 꾸어 본다.

“사람이 사리사욕에 빠져 염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은 모두 다 스스로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 유창하, 『인간 서애 류성룡 이야기』 중 🐼

이은정 회원



병산서원 강당에서 바라본 만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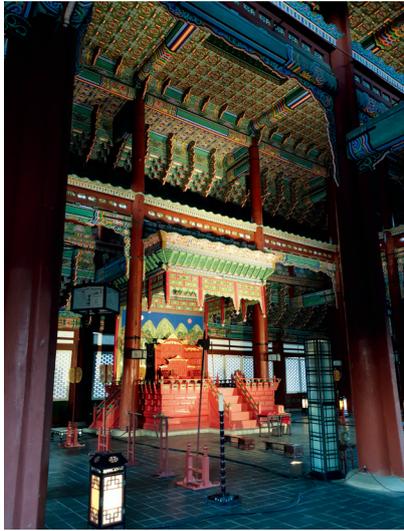
辰
별
아
래
만
다
연
緣

사회에서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소중한 인연이 형성되어 역사가 시작되듯이, 사소한 인연은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 명제에 대해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또한, 이방원이 창덕궁을 지은 것은 단순히 필요에 따른 우연이었을까?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필연이었을까? 이번에는 좀 더 가볍고 독특한 관점으로 정도전과 이방원에 따른 경복궁과 창덕궁을 해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도전과 이방원이 건축한 방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풀어보려 한다. 짧은 식견으로 논하기에는 부족하고, 연구를 통해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역사란 거울처럼 자신을 돌이켜보는 학문이기에 가볍게 글을 써보겠다.

실록에 의하면 경복궁의 경복은 『시경』의 「주아」편에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영원토록, 그대의 크나큰 복을 모시리라.”에서 따온 것이다. 아무래도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기에 평생토록 복을 누리라는 염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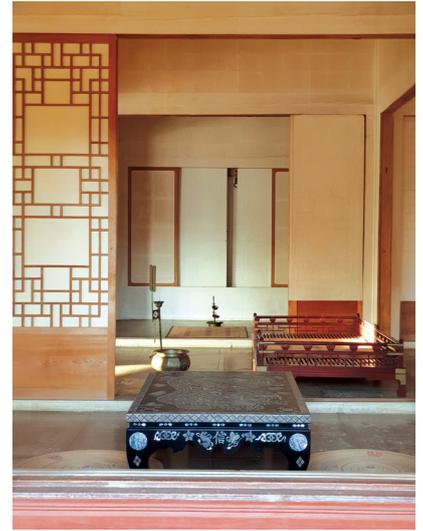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

궁궐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건물인 정전政殿의 명칭을 근정전勤政殿이라 지었는데, 직역하면 부지런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정도전 또한,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폐하게 됨은 필연한 이치”라며 그 이유를 말했다. 아울러 임금 주변이 부지런하지 않고 아침과 아양 떠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태만해지고 거칠어진다고 했다. 한·당·송의 시대가 예전 삼대三代 때만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경복궁 강녕전

즉, 정도전은 임금이 아침에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이를 찾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부지런함을 제시했다. 어떻게 보면, 정도전 자신이 느끼고 행동했던 것처럼 왕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신하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고, 왕은 단지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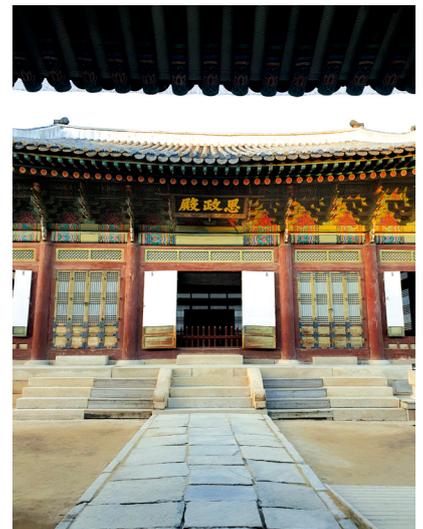
경복궁의 법전인 근정전을 지나면 편전인 사정전思政殿이 나온다. 사정전은 직역하면 생각하며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정도전은 『서경』을 인용하여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 했다. 또한, 사정전은 왕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에 조

칙을 내리는데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인재를 발탁함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화패¹⁾禍敗는 진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했다. 즉, 왕은 슬기로운 성인이 아니기에 늘 생각하고 백성과 어진 인재를 생각하라는 의미이다.



경복궁 사정전

사정전 뒤의 강녕전은 왕의 침전으로 『서경』의 「홍범구주」에 나오는 오복五福에서 따온 것이다. 오복은 수·부·강녕·유호덕·고종명이다. 정도전이 침전을 강녕으로 지은 까닭



경복궁 사정전



창덕궁 인정전



창덕궁 대조전

은 강녕은 오복의 중간에 있어 남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녕전은 침전이기에 휴식하면서 나태해질 수 있다. 이에 정도전은 위衞나라²⁾ 무공武公의 사례를 들며, 강녕전에서조차 안일함을 경계하고 공경과 두려움을 마음에 두라고 했다.

정도전은 전체적으로 왕의 완벽함을 부정했다. 또한, 왕권을 약화하고 유교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위해 사병을 없애고자 했다. 이에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비롯해 세자인 이방석과 이방번을 죽였다. 이처럼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정치가 불안정했다. 이후 형제간의 골육상쟁이 일어난 현장을 떠나 개경으로 재천도했지만, 이방원은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방원 역시 골육상쟁의 현장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새로 궁궐을 짓는데, 그것이 창덕궁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 정확한 사료는 없지만, 『태종실록』에 창덕궁에 대해 환어還御했다고 한 것을 보면, 태종은 창덕궁을 법궁으로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복궁의 위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³⁾

그러면,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창덕궁의 전각들을 비교 해석해 보겠다. 창덕궁을 직역하면 덕이 왕성하여 덕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어떻게 보면 왕의 덕이 넘쳐난다고 볼 수 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해당하는 창덕궁 인정전은 어진 정치를 펼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왕이 어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정도전은 왕의 권력 독점을 부정했지만,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다.

정도전은 침전에서조차 나태해지지 말라는 의미로 강녕전을 지었지만, 창덕궁의 침전은 대조전으로 훌륭한 세자를 낳기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은 미묘하지만, 해석의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복궁은 신권중심의 정치공간이라면, 창덕궁은 왕권중심의 정치공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방원의 아들인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에 세종은 경복궁으로 환어했다. 즉, 세종에 의해 경복궁은 왕과 신하의 조화를 위한 장으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세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을까? 이를 『주역』의 괘사卦辭로 풀이해보겠다.



경복궁 교태전에서 바라본 강녕전



경복궁 교태전

흔히 경복궁의 교태전交泰殿을 왕비의 침전으로 알고 있지만, 축조 당시에는 왕비의 침전이 아닌 왕과 신하들의 연회 장소였다.⁴⁾ 교태전의 태泰는 태괘(☰)에서 따온 것인데, 형상은 건(☰)이 아래에 있고, 곤(☷)이 위에 있는 형상이다. 건은 순수한 양이기에 가볍고, 곤은 순수한 음이기에 무겁다. 따라서 건은 올라가고, 곤은 내려와서 교합을 통한 소통을 의미한다. 또 다르게는 군자(☰)가 자라서 소인(☷)이 없어지는 형상이다. 즉, 왕과 신하의 교합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상하上下의 뜻이 합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건과 곤이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를 비괘(☶)라 하며, 형상은 건이 위에 있고, 곤이 아래에 있다(☶). 이는 천지가 교합하지 못해 막힌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이다. 또한, 소인이 자라서 군자가 없어지는 형상이다. 즉, 상하 간 소통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정도전과 이방원은 과정만 달랐을 뿐, 왕조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바랐다. 정도전은 신하가 중심이 되어 빛을 지키기를 바랐으며, 이방원은 왕이 중심이 되어 아

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둘의 결과는 세종에서 실패를 찍었다. 이방원은 세종을 위해 택현론을 주장했고, 세종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덕성을 백성들에게 비추는(光化) 큰 은혜를 베풀었다. 비로소 국가의 물줄기가 곧게 흐르게 되었다. 정도전과 이방원, 그리고 세종이라는 결과를 생각해보면, 어느 조직에서든 상하 간에 소통은 필요하다. 즉, 서로의 나팔 소리가 어우러져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 생각한다. 🌍

이영명

- 1) 재화災禍로 인한 실패
- 2) 중국 주周나라 때, 은殷나라 유민을 다스리기 위해 은나라 도읍인 조가朝歌에 세워진 왕조
- 3) 이방원은 창덕궁이 완공된 다음 해에 경복궁을 수리했다.(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5일 신축 3번째기사 경복궁을 수리하다)
- 4) 『경복궁영건일기로 본 경복궁 중건』, 이성희 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 p79

델프트 풍경을 찾아가는 예술여행



페르메이르, <델프트 풍경>, 마우리츠하위스미술관

올해 2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라익스뮤지엄Rijksmuseum)에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Johannes Vermeer(1632~1675)의 특별전이 열렸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 37점 중 27점이 이번 전시를 위해 전세계 미술관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모였다. 잘 알려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Mauritshuis미술관에서, <델프트의 집 풍경, 혹은 작은 거리>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시’라는 평가를 받으며 45만장의 티켓이 이들 만에 매진되었고, 20만장이 추가되었지만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 때문에 이베이 경매사이트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암스테르담

첫 전시실에 입장하니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페르메이르를 가까이’라는 글이 보인다. “여기서 페르메이르가 어떻게 외부세계를 고요한 장면으로 그려 소개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예술적 발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 속 여성들이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바라보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초기작을 제외하면 페르메이르의 작품은 크기가 작다.



〈델프트 풍경〉 언더페인팅 적외선 사진

- ① 황백색 물감을 두껍게 칠한 신교회Nieuwe Kerk의 탑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다. 왼쪽 가운데는 스키텔담 문이다. 시간은 오전 7시이고, 오른쪽은 로테르담 문이다.
- ② 그림을 대략 네 개의 수평 밴드로 나누고 각 밴드를 밝고 어두운 부분을 교차하여 구성하였다. 부두의 밝은 모래를 전면에 배치한 뒤, 배 오른쪽에 흰색 하이라이트를 살짝 칠해서 햇빛이 반사되는 효과를 주었다.
- ③ 여성들 중 한 명의 옷차림은 페르메이르가 같은 시기에 그린 〈우유를 따르는 여인〉과 같다.

페르메이르는 델프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었다. 그는 아트 딜러인 아버지의 그림에 둘러싸여 자랐다. 칼빈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카타리나 볼레스와 결혼하려고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페르메이르는 화가이며 아트 딜러이고 성 루크 예술가 길드의 회장이었다.

가장 보고 싶었던 〈델프트 풍경Gezichteop Delft〉(1661)이 첫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른 아침 햇빛이 쏟아지는 고향 델프트의 모습을 자세하게 포착해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묘사하여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풍경화이다.

그의 풍경화로 알려진 작품은 석 점이나 현재 〈델프트 풍경〉, 〈델프트의 집 풍경 혹은 작은 거리〉 두 점만 남아 있다. 페르메이르는 당대에 그리 명성이 있는 화가는 아니었다. 그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즉 사후 이백 년이 흐른 뒤에야 문인들의 글에 의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미술 비평가 테오필 토레Théophile Thoré(1807~1869)는 페르메이르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글을 많이 썼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헤이그의 한 미술관에서 〈델프트 풍경〉을 본 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극찬했다.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델프트 풍경〉을 소재로 한 극적인 장면이



페르메이르, 〈델프트의 집 풍경 혹은 작은 거리〉,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델프트 운하

나온다. 주인공 베르고트가 이 그림의 노란색 작은 벽면의 마티에르(1과 2번 사이의 벽)를 발견하고 감동을 받으며 죽어가는 장면이다. 소설의 영향으로 이 그림은 더욱 유명해졌다.

나는 그림 속 두 여인이 서 있던 장소에서 델프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림을 떠올렸다. 호이카더 거리 앞의 운하를 따라 사람과 물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림 속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다. 강과 운하로 둘러싸여 반영을 품은 조용한 도시 델프트에는 페르메이르의 그림처럼 신교회의 첨탑이 보인다. 그림 속의 여인처럼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림의 하단 오른쪽이 로테르담 문이다. 파란 지붕 사이로 투명한 노란 벽이 햇빛에 반사된다. 배와 벽에 흰 점으로 반사되는 빛을 표현했다. 이 배들은 청어 잡이 어선이다. 당시 유럽에는 소빙하시대가 찾아와 청어 떼가 남하했다. 뜻밖의 풍어를 맞아 배 위에서 청어 내장을 손질하고 바로 소금에 절일 수 있는 염장법을 개발한 빌렘 벤켈소어의 획기적인 저장법으로 자본을 축적한 네덜란드는 전세

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확장하고 17세기 황금시대를 누리게 된다. 델프트의 구교회Oude Kerk 왼쪽 옆에 보이는 붉은색 지붕은 1602년에 설립된 동인도 회사 건물로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였다. 무역선이 향해 중 난파할 때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당시 해상무역의 패권을 쥔 네덜란드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그림에는 두 개의 교회가 보인다. 동인도회사 지붕 사이로 보이는 첨탑은 구교회이고, 푸른 지붕 사이의 첨탑은 신교회이다. 두 교회는 건축 당시에는 가톨릭 성당이였으나, 페르메이르가 이 그림을 완성할 당시에는 종교개혁으로 모두 개신교 교회로 바뀐 후였다. 어느 미술사학자는 신, 구 교회가 함께 그려져 종교의 자유와 구교와 신교의 공존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다. 페르메이르는 1660년에서 1661년 사이에 이 그림을 완성했고, 구교회에 잠들어 있다.

마르크트Markt 광장의 델프트 신교회는 종탑 높이가 108.75m인 고딕 양식이다. 탑이 밝은 햇빛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페르메이르는 당대의 화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페르메이르의 생가, 왼쪽 창문이 아틀리에

방법을 썼다. 그는 인도에서 망고를 먹여 키운 신성한 소의 오줌에서 추출한 밝은 노란색을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캔버스에 칠했다. 모래를 섞은 물감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며 마티에르를 전달한다. 파란색 안료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수입되는 금보다 3~4배 비싼 준보석인 라피스 라줄리(청금석)로 만드는 울트라마린이다.

풍경화에서는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따라 공간감이 달라진다. <델프트 풍경>은 하늘이 2/3를 차지하고 그 아래 마을과 물가가 전개된다. 또 광활한 수평선이 띠를 이루며 공간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고 좌우 넓이의 폭으로 전개된다. 즉, 시선이 공간 속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고 넓이의 횡적인 선을 따라 움직인다. 500년 동안 서양미술을 이끌어왔던 르네상스적인 선 원근법이 무시되고 오히려 구름의 색과 크기로 공간의 깊이를 구현했다.

빛으로 충만한 하늘, 빛의 음영을 보여주는 마을 그리고 대기의 빛과 자연의 물체를 반사하는 운하로 화면을 뚜렷이 삼분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빛’ 때문이다. 하늘은 빛을 머금은 대기의 농도에 따라 공간이 구별된다. 네덜란드의 풍경화는 ‘빛’의 작용을 이용하여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심리적 공간성’을 연출한다.

알랭 드 보통은 “미술은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시적이고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을 마음에 담으려면 미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똑같은 풍경을 보고도 화가들은 의미 있는 양상에 감상자가 집중하도록 그림을 그린다. 그들은 미의 정서적 의미를 강화시켜, 섬세한 감성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을 창작한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우리는 인식을 확장하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물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도 받고, 새로운 사유와 취향을 만들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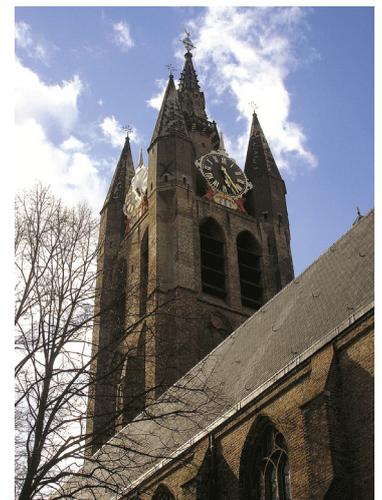
최금희 회원



페르메이르 묘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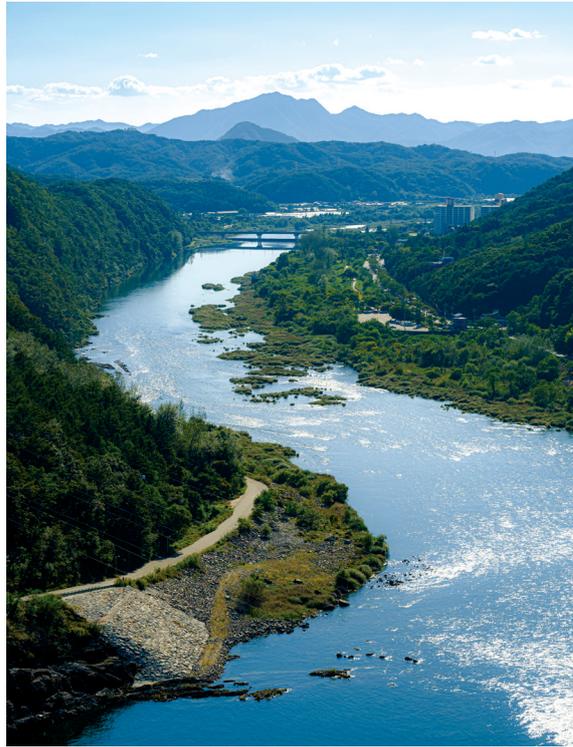


델프트 신교회



델프트 구교회 첨탑

북한강의
옛
고을 春川



춘천 소양강댐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우창민

춘천春川이란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말 할 것 없이 커다란 하천을 끼고 발전한 고을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천川’ 자가 들어간 곳은 인천仁川, 대천大川, 사천泗川처럼 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항포구에 형성된 고을이었다. 춘천처럼 내륙의 고을에 ‘천川’ 자가 붙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만큼 춘천은 대하천이 흘러 물과 인연이 깊은 고을이라는 의미를 지녔을 셈이다.

춘천은 먼 옛날부터 강상江上의 고을로 성장하였다. 춘천은 무려 3개의 강줄기가 모여 북한강의 본류를 형성하는 곳이었다. 본래의 북한강 상류, 동북방에서 춘천으로 입수하는 소양강 그리고 춘천 시내를 관통하는 공지천孔之川이다. 공지천은 ‘큰 내’라는 의미이다. ‘큰내’를 ‘곰내’, ‘공내’로 부르다가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공천孔川, 공지천孔之川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춘천은 실로 삼강三江이 합류하는 합강도시가 되었으니 춘천이야말로 고대국가의 대 도읍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지리적 기반 위에 춘천을 중심으로 탄생한 고대국가는 바로 맥국貊國이었다. 예로부터 맥貊, 예맥濊貊 등으로 불리던 ‘맥국’은 고대 한국과 중국의 사료에서도 그 중심 고을이 춘천이었을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춘천 중도 유적’에서는 무려 160기가 넘는 고대 적석묘가 발굴되었고 부근에서는 고대 마을 유적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오래된 고인돌 유적도 무수히 발견되었다.

‘춘천 중도 유적’은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계문화유산 급의 고대사회 자취이며 맥국의 수도로서 춘천의 유구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웅변해주는 문화사적 좌표이다. 중도는 원래 섬이 아니라 육지였다. 안타깝게도 1967년 의암댐이 건설되어 이곳 일대가 수몰되고 그나마 잠가지 않은 부분이 ‘중도’란 이름의 섬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에 원래의 땅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면 중도 일대의 유적은 맥국의 수도답게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며 오늘날 춘천의 역사는 다시 씌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계에서는 춘천이야말로 맥국의 차원을 넘어 남한의 유일한 ‘고조선 유적’이란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춘천은 삼국시대에 들어 고구려의 영토가 되고 진흥왕이 고구려를 공략한 이후로는 신라의 영토가 되어 637년(선덕여왕 6)에는 우수주牛首州란 이름의 고을이 되었다. 삼국 통일 후 673년(문무왕 13)에는 수약주首若州로 개명되고 신문왕 때에는 춘천이 1소경(小京, 북원경/원주)과 12군 26현을 관할하는 강원 내륙의 대 고을로 성장하였으며 통일신라 최전성기인 경덕왕 때에는 삭주朔州로 개칭되었다.

이 고장이 ‘춘천’이란 이름을 갖게 된 시초는 고려시대이다. 940년(태조 23)에 이곳은 춘주春州라고 개명되었으며 수도 개경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노정에 위치한 가장 큰 고을이 되었다. 조선시대 들어 태종 때 비로소 이 지역을 춘천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오히려 춘천의 지위는 격하되어 군郡이 되고 대신 강릉과 원주가 더 부각되었다. 그러나 춘천 고을의 위상은 여전하였으니 지금도 군데군데 남아 있는 유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유적이 바로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보물)이다. 고려는 불교를 장려한 국가였기에 도심 한가운데에 불교사원이 세워지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당간지주는 절 입구에 커다란 깃발을 걸기 위하여 세워진 조성물인데 그 위치가



근화동 당간지주 ©문화재청



춘천 중도유적 지석묘들 ©국립문화재연구원



춘천 중도유적 지석묘 ©국립문화재연구원



춘천칠층석탑 ©문화재청



춘천칠층석탑 탑신괴임 ©문화재청

이 정도의 석탑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이곳의 사찰 규모는 대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탑의 층수가 칠층이란 점은 이 석탑이 고려시대에 세워졌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고려시대에 들어 대부분의 석탑은 5층 이상의 다층석탑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강변에서 매우 가까워 춘천의 중심부인 이곳에 대규모의 강변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짐작케 해 준다.

예로부터 강을 끼고 발달한 고을은 수상교역으로 부를 축적해왔으며 그러한 곳에는 으레 수변사찰이 세워졌다. 이곳을 오가는 상인과 지역인들로부터 많은 시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변사찰은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고을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였다.

근화동 당간지주에서 약간 더 안쪽으로 위치한 소양로에는 이 고장을 대표하는 또 다른 불교유적인 춘천칠층석탑(보물)이 있다. 높이가 약 6미터에 달하는 큰 규모의 석탑이다.

그런데 이 석탑의 초층 탑신 밑에는 탑신 전체를 받치는 연꽃장식 받침돌이 놓여 있다. 탑신 전체를 부처님의 몸체로 받아들여 연꽃장식의 방석 위로 부처님을 모시려는 발상에서 착안된 조형기법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탑의 규모가 작아지는 바람에 불탑의 탑신이 불신(佛身)으로 전환된 결과인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고려시대 춘천의 문화적 위상을 대표하는 유적은 바로 오봉산 청평사이다. 이 사찰은 고려 초인 973년(광종 24)에 백암선원(白岩禪院)으로 창건되었다. 그 후 1068년(문종 22)에 왕실의 막강한 외척인 이의(李穎)가 중건하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하였으며, 1089년(선종 6)에는 그의 아들



청평사 고려선원 영지 ©청평사



청평사 회전문 ©청평사

인 이자현李資玄이 다시 중창하였다. 이자현은 고려 문종 때 세 딸을 모두 왕비로 들었던 막강한 외척 이자연李子淵의 손자이다. 또한 당시 외척의 난을 일으킨 이자겸과는 사촌간이었는데 그는 이자겸과 달리 청정한 선비였다. 20대에 지금의 국립국악원장 격인 대악서승大樂署承을 지냈으나 28세에 정쟁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들어와 별장의 정원을 만들고 평생 은거하면서 산 이름을 청평淸平이라 하고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들어 1555년(명종 10)에 보우普雨 선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이곳에 와서 청평사로 개칭하고 대부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처럼 춘천은 고려왕실과 조선왕실에서 왕도와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주변이 청량한 고을로 관심이 컸던 것 같다. 지금도 청평사 입구에는 이자현이 조성한 별장 유적인 영지影池가 고려선원(명승)으로 남아 있으며 사찰 경내에도 물을 끌어들이 진귀한 수중 정원을 만들었던 자취가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신축된 대웅전의 축대와 계단의 자태는 왕실이 후원한 기풍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내 출입문인 청평사 회전문廻轉門(보물)은 보기 드문 조선전기 사찰건축의 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곳 또한 1972년 소양강댐이 완공되면서 진입로와 주변 마을들이 수몰되고 그 자리는 ‘소양호’라는 드넓은 호수가 되어버렸다. 지금은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청평사를 둘러싼 오봉산을 우회하여 진입해야 한다. 산을 소재로 한 민요가 흔치 않은데 ‘오봉산 타령’이 전해올 정도로 오봉산은 춘천의 명산이다.

사찰과 관련된 음식문화 중의 하나가 국수요리이다. 과거에는 국수를 만드는 과정이 워낙 까다로웠다. 사찰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특별음식으로 시작된 국수가 나중에 민간에게도 보급되어 결혼식 날이나 먹을 수 있는 별식이 되었다. 그

러한 국수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찰이 우리나라에 두 곳이 있다. 쌀국수를 만들었던 경북 상주의 미면사米麵寺와 춘천의 조면사造麵寺이다. 그중 춘천시 서면에 세워진 춘천 월송리 삼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이 바로 조면사의 삼층석탑인데 춘천이 ‘막국수’의 고장이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조선시대에 들어 강릉과 원주에 밀려 고을의 위상이 격하된 춘천은 1895년(고종 32)에 춘천부로 개편되고 원주의 감영이 춘천으로 이관되면서 비로소 도청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46년에 춘천읍이 춘천시로 승격되면서 시외 주변지역은 춘성군이 되었다가 1995년 시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춘천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춘천은 일찌감치 고대 부족연맹국가 시절부터 맥국의 도읍으로 부상한 강상江上의 역사도시였다. 다만 오랜 세월 속에 머나먼 과거의 영광이 기억 속에 사라졌을 뿐, 근대에 들어 도청소재지의 면모를 갖추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춘천 시민들의 노력도 더해졌으니 춘천 출신의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의 구국항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1939년 경춘선 철도가 순전히 춘천의 민간자본으로 개통되고 이것이 춘천에 강원도청을 유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춘천 월송리 삼층석탑 ©문화재청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강좌 프로그램 안내

47기 특설강좌

1977년부터 40년 넘게 진행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박물관 강좌입니다.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한층 심화된 주제와 내용의 연구강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24년 3월~12월

▶시간: 화요일 또는 목요일 매주 1회 14시~17시/ 8월 휴강

과목	강사
오리엔테이션	국립중앙박물관회
한국박물관 100년사	장상훈(국립진주박물관)
한국고대사	윤선태(동국대학교)
중국고·중세사	최재영(서울대학교)
그리스 로마 신화	김헌(서울대학교)
한국 불교 사상의 이해	고영섭(동국대학교)
고려시대사	박진훈(명지대학교)
한국 불교조각	임영애(동국대학교)
중국 불교조각	배재호(용인대학교)
한국 도자사1(청자~분청사기)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불교회화	김정희(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선시대사	한명기(명지대학교)
서울 도성의 역사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한국 도자사2(순백자~청화백자)	전승창(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궁중회화	유재빈(홍익대학교)
한국풍속화	유미나(원광대학교)
전시실교육1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
일본 역사와 문화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현대 일본 사회와 한일관계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한국건축문명의 이해	전봉희(서울대학교)
서양 건축사	임석재(이화여자대학교)
명·청시대사	조영현(고려대학교)
중국회화	장진성(서울대학교)
서양 미술의 이해1(르네상스 미술)	정은진(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민화	정병모(경주대학교)
인도 불교조각	이주형(서울대학교)
인도문화와 미술	구하원(서울대학교)
서양 미술의 이해2(근현대 미술)	강은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 근현대미술	조수진(성신여자대학교)
전시실교육2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

※ 사정에 따라 강사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안내

모집인원: 400명(화요일반 200명, 목요일반 200명)

모 집 일: 2024년 1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선착순 모집

▶ 연구강좌

1980년대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스터디 모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학문 분야의 대학교수와 관련 전공학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강좌 1**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15회 진행
한국 미술시장의 탄생 **손영옥(미술사가)**
한국에서 근대 미술시장이 탄생하는 과정을 경제·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격동의 한국 근대사가 미술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룬다. 미술시장에서 1, 2차 시장의 핵심인 화랑과 미술품 경매회사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 연구강좌 2**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15회 진행
한국의 사찰 **최선주(前국립경주박물관장)**
한국의 사찰 강좌는 불교 신앙의 전래와 수용에 따른 사찰의 조영과 그 변천사를 살펴본다. 9산선문의 등장과 산지가람의 발전, 고려시대 역원 및 조선왕릉과 사찰의 관계 등을 학습하여 우리나라 사찰의 역사는 물론 사찰 속 불교예술품을 이해할 수 있다.
- 연구강좌 3** 둘째,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15회 진행
30인의 미술작가와 그들의 삶 **정하윤(미술사가)**
20세기 동서양 미술가들의 다양한 삶과 그것이 투영된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우리를 둘러싼 관계나 공간 같은 삶의 모습을 다각도로 성찰해 본다. 거장들의 작품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연구강좌 4** 둘째,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15회 진행
대통령으로 본 미국사 **김봉중(전남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들의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온 미국 역사와 사회를 이해한다. 아울러 대선 이후 집권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세계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해본다.
- 연구강좌 5** 첫째,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5회 진행
그리스 역사와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 **박재욱(신라대)**
서양사의 뿌리이자 출발점인 그리스 역사와 문화를 통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문화적 흔적을 탐구하고 고대 그리스에 나타났던 새로운 시대 변화인 헬레니즘과 비교하며 서양 고대사의 흐름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 연구강좌 6**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5회 진행
서양건축사 **양용기(안산대)**
건축은 형태와 기능, 두가지로 나뉜다. 형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은 건축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서양건축사 속 건축의 형태들을 인본주의적 시점으로 심도있게 다룬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포스트 모더니즘 등 각 단어와 개념부터 세세히 짚을 것이며, 각 시대상이 건축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건축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강좌 7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15회 진행

중국근현대사

전인갑(서강대)

본 강좌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청말·중화민국 시기·중화인민공화국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 근현대 중국은 부강한 중국을 재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20세기의 중국인들은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혁명과 자기 정체성 부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본 강좌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한다.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그리고 현대사(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와 근대사를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이해한다.
- 2000년 이상 지속하면서 형성된 가치체계, 사회질서, 정치질서와 서구의 영향으로 생겨난 소위 근대적 가치체계, 사회질서, 정치질서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근현대 중국인들은 각자의 생존을 모색하고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야 했다. 본 강좌에서는 그러한 충돌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려 한다.

연구강좌 8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15회 진행

실크로드와 한반도의 문명교류, 그리고 문화재 전쟁

강인욱(경희대)

한국과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고대 문명 교류의 현장을 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화려한 유물 뒤에 숨겨진 첨단 기술의 전래, 그리고 실크로드를 둘러싼 강대국의 문화재를 둘러싼 암투를 통해 실크로드의 화려한 모습에 가리어진 진면목을 본다.

연구강좌 9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15회 진행

고대 서아시아 언어와 상징 읽기

유성환(서울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세계 최초로 문자가 발명된 곳이다. 따라서 고대 언어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문명은 또한 뛰어난 조형예술 작품과 다양한 상징체계를 남겼다. 이번 연구강좌에선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록을 가진 고대 서아시아의 언어와 상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모집 안내

모집인원: 1,300명(강좌별 100~200명)

모집대상: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

모 집 일: 2024년 1월 9일 화요일 10시부터 강좌별 선착순 모집

▶테마강좌

2021년부터 새롭게 개설한 테마강좌는 기존의 특설·연구강좌와 차별화하여 하나의 주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테마강좌 1 3~5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12회 진행

유럽의 박물관·미술관 산책 I - 스페인

이현(미술사연구소)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의 척도이자 하나의 소유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변한다. 유럽 각국의 주요 미술관 역사와 소장품, 최근 전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며, 스페인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테마강좌 2 9~12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12회 진행

유럽의 박물관·미술관 산책 II - 스페인 마드리드

이현(미술사연구소)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의 척도이자 하나의 소유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변한다. 유럽 각국의 주요 미술관 역사와 소장품, 최근 전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며, 스페인 마드리드의 박물관 미술관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테마강좌 3 3~5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10회 진행

예술, 역사를 만들다 I

전원경(세종사이버대)

뛰어난 예술 작품은 예외 없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세계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미술, 음악, 문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살펴보고 예술과 역사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에 대해 추론해본다.

테마강좌 4 9~11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10회 진행

예술, 역사를 만들다 II

전원경(세종사이버대)

군주, 교황, 귀족이 지배하던 근대 이전의 서양 사회는 프랑스 대혁명을 분기점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로 탈바꿈한다. 근대와 현대의 역사적 전환에서 예술과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역사의 변화와 함께 살펴본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600명(강좌별 100~200명)

모 집 일: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강좌별 선착순 모집

▶특강

특강은 연구강좌, 테마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나 박물관의 전시와 연계하여 강좌를 진행합니다.

특강1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 4회 진행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류승진(국립중앙박물관), 유근자(동국대), 심재관(상지대), 노남희(국립중앙박물관)

기원전 5세기, 인도 북부에서 시작된 불교는 수백 년에 걸쳐 남인도로 전해졌다. 남인도의 운택한 자연환경, 고유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해가는 불교미술의 특징을 스투파에 새겨진 다양한 이야기 부조로 살펴본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100명

모 집 일: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강2~5는 현재 기획중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강좌는 유료 강좌입니다.

※연구강좌는 특설강좌를 수료한 회원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박물관강좌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프로그램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공고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제13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본 학술상은 박물관의 학술 연구 사업을 장려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된 상입니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소장품 관리, 교육, 전시 등 포함)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1. 응모분야

-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보존과학, 박물관학(소장품 관리, 교육, 전시 등 포함)
 - ※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미술, 민속 등으로 한정
 - ※ 세계문화는 우리문화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다.
- 박물관 기획전 전시도록(전시기획, 디자인, 도판해설, 도록편집 등 포함)
 - ※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각종 용역사업의 성과물은 제외

2. 응모자격: 등록 박물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학예사 및 직원 또는 부서

3. 응모대상: 2023년도 발표 또는 발행된 논문 또는 전시도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등록된 박물관에서 발간한 연속 간행물에 게재된 것
 - ※ 연속 간행물은 공모 마감일 기준, 3년간 3회 이상의 발간 실적이 있을 것
- 2023년도 기획특별전 전시도록
 - ※ 전시기간이 당해연도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응모대상으로 인정함

4. 출품수: 1인 1편(전시도록은 박물관 부서명)

5. 접수기간: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6. 제출서류: 논문 - 신청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 1부, 논문자료(pdf양식) 1부, 간행물 1건

전시도록 - 신청서(소정양식) 1부, 전시도록 자료(pdf양식) 1부, 간행물 1건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시도록의 경우 필요 시 별도의 서류(박물관 확인증)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gomuseum@hanmail.net
 - ※ 제출 후 수신확인 관련하여 제출자 직접 확인 요망
- 간행물은 우편 및 방문 제출(마감일까지)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101호
-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8. 발표 및 시상: 2024년 5월 중

※ 수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지

9. 수상 및 부상

- 천마상 1명(일천만 원), 금관상 3명(오백만 원), 은관상 5명(삼백만 원), 특별상(전시도록) 2개 기관(삼백만 원)
 - ※ 우수한 성과물 및 적정 범위의 논문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10. 참고사항

- 특별상은 단체상으로 기관인 박물관 또는 부서명으로 신청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절 논문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11. 문의사항: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02-2077-9795)



소꿉도구, 금속공예실

소꿉놀이

흙 한 줌 떠 밥을 짓고
풀잎 뜯어 반찬을 만들며
해맑게 웃던 조그만 여자애

이미 어리지 않은데
여전히 소꿉질을 하며

세월의 무게를 느낄 즈음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아름다운 시절은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는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윤재륜 회장을 거쳐 2023년 11월 박은관 회장이 취임했다.

회 장 박은관
부 회 장 윤석민 허용수
당 연 직 윤성용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홍정욱
감 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허윤수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홍석조 (주)BGF리테일 회장
 홍정욱 율가니카 회장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회장
 조영준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최정훈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장
 최철원 MIGHT&MAIN(주) 사장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홍정혁 BGF 에코머티리얼즈 사장
 효 경 회원

주작회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윤광자 회원

금관회원
 강덕수 진 (주)STX 회장
 경 원 극락사 주지
 권준일, 구재선 Actium Group 부회장
 권지혜 아이에스지주 전무
 김남연 (주)동훈 대표이사
 김대환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김승겸 서릉주주(주) 대표이사 의장
 김재훈 영풍제약 대표이사
 김지연 (주)컨셉 대표이사
 김지원 한세엠케이(주) 대표이사
 김현전 히든베이호텔 사장
 도형태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류지훈 SB Investment 사장
 박병업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박선주 대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박영주 영은미술관 관장
 박용운 아성다이소 부사장
 성래은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송영숙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양홍석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우찬규 대신증권(주) 부회장
 유상욱 학교재 대표
 이교상 코리어나나화장품 회장
 이규식 서울가든호텔 사장
 이명희 경신금속(주) 대표
 이수경 일우재단 이사장
 이정용 삼보모터스그룹 사장
 이주환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이택경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임종훈 MashupAngels 대표
 장인우 한미약품 사장
 최용선 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최은선 (주)인팩 대표이사

은관회원

강승모 KP그룹 부회장
 강원기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김영명 (주)예울 이사장
 김민수 (주)삼익악기 스포코 부회장
 김영희 회원
 김은혜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김종한 (주)중합전기 대표
 김태훈 두원중공업 부사장
 권재현 반도건설 부사장
 권택환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류방희 (주)풍산주택 회장
 박경진 진주행 대표이사 부사장
 박영정 V&S자산운용 상무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백진우 (주)동성케미컬 사장
 서재량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성필호 광성기업(주) 대표
 송 철 성문출판사 대표
 신병찬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품관 관장
 유창종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윤현경 동화약품 상무
 이우일 주식회사 유니드 대표이사 부사장
 이상재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임지선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천마회원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석수 동서식품(주) 회장
 김신한 (주)에이원 사장
 김익환 한세실업(주) 부회장
 남수정 (주)썬앳푸드 사장
 박진원 두산반깃 부회장
 배동현 창성그룹 부회장
 손창근 소장가
 송병준 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신현철 SK에너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윤장섭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윤재륜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이우성 SGC에너지(주) 사장
 이육경 서울옥션 부회장
 이주성 세아제강 사장
 윤 관 BRV Capital Management
 장선하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전재범 금강공업(주)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최신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최두준 (주)동남유화 회장
 최태원 (주)SK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정은미 블루앤코 대표
 주신희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함영준 (주)오뚜기 회장
 홍정도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홍진인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홍진기 마리오 아울렛 전무
 현지호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황정환 (주)케이지에프 전무

청자회원

고기영 (주)금비 부회장
 구동희 LS ELECTRIC 대표이사, 부사장
 구분권 LS MnM 전무
 구분상 LIG 회장
 구분옥 (주)LK 대표이사 사장
 구분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구용수 닥터구의원 원장
 구원경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구원희 한성플랜지 이사
 구은성 LS 네트워크 이사
 구형모 (주)LX MDI 대표이사
 국현영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김건호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김경영 회원
 김경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김낙승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김녕자 (주)에올 명예이사장
 김동관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김동선 한화 갤러리아/한화 호텔 앤드 리조트 전무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동철 (주)서브윈 대표이사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미원 회원
 김상운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김성완 스무디킹 Global CEO
 김세연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연규 EKK Food Group 부사장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김영수 한국청소년영구소 이사장
 김영혜 제일화학 이사장
 김유석 (주)행남 대표이사
 김윤수 지리산 문학관 관장
 김인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김주원 (주)서라벌 이사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김정주 (주)NXC 이사
 김중학 서양화가
 김지태 화성피앤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현 성신양회 회장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대표
 김현강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글로벌 대체부문 부문장/전무
 노 석 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노재연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남재욱 인젠트 전무
 담서원 오리온 상무
 류중희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문수희 회원
 문윤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민경남 회원
 민병철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민준기 텔렌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박범준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박성경 용인대학교 총장
 박성재 성호전자 대표이사
 박재상 회원
 박재연 성곡미술관 이사
 박정빈 (주)신원 부회장
 박정원 회원
 박주원 시몬스 에프씨 대표이사
 박준영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박찬미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
 박해춘 회원
 박혜성 (주)농심기획 상무
 방정오 TV CHOSUN 전무
 배윤식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봉 옥 변호사봉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신 (주)대명건설 대표이사
 서동입 회원
 실윤석 대한광통신 사장
 승지수 동화기업 부회장
 손원탁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신연균 아릅지기 이사장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
 신지연 JS유지업 관장
 신창수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이사
 회원
 오승민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오치훈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유동현 (주)인성 사장
 유영지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유진현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윤보현 호림박물관 이사
 윤승현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윤일영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정선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규호 코오롱모빌리티 그룹 대표이사 사장
 이기웅 열화당 대표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이미숙 삼표산업
 이선진 목금토갤러리 관장
 이승용 (주)에이티넵파트너스 사장
 이영순 한국미술협회 회원
 이영자 회원
 이용균 알스케어 대표이사
 이용진 (주)농능 경영총괄 사장
 이우현 OCI 사장
 이운경 남양유업 전문위원
 이윤기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사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이주엽 대륙종합건설 상무이사
 이준우 흥아해운 부사장
 이지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롯데쇼핑 총괄사장
 이학준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이혜진 NAVER GIO
 이혁 회원
 임재현 보해양조(주) 이사
 장동진 (주)파워맥스 사장
 장선익 동국제강(주) 전무
 장성진 글렌우드프라이빗에퀴티 상무
 장승준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장우진 대한다업(주) 이사
 양승화 (주)DSP홀딩스(주)두성테크 부사장
 양현재단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정영태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정영수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정영해 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재호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정지이 현대무백스 전무
 정해인 회원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
 조영미 경동소제 대표이사
 조재현 회원
 조희경 (주)화요 부사장
 진재욱 하나유비에스 대표
 차가원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 그룹 상무
 천석규 천일식품(주) 대표
 최선목 (주)조광건설 회장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
 최세훈 (주)카카오/카카오페이 보험NewCo TF장
 최원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최원영 L Catterton 상무
 최인선 회원
 최재원 SK(주) 부회장
 최창화·정혜숙 회원
 최혜옥 회원·자원봉사
 최훈학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한승희 중앙에너지 전무이사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허정석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SPC 파크리크라상 사장
 허치홍 GS리테일 상무
 현명관 회원
 호종일 호성홍업 회장
 호창성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홍범석 백미당 사업본부장
 홍석표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홍원복, 김근호 회원
 홍인관 아이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홍정국 BGF 대표이사 사장
 홍진석 남양유업(주) 상무
 황인규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대표이사



각지의 주먹도끼들 ©국립대구박물관